

#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층 비교: 최근 추이와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김 범 ↑

서울대학교

본 논문은 지지통신사(時事通信社)가 1960년 6월부터 매달 실시해오고 있는 “시사세론조사” 2004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두 주요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최근 5년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본 후, 오사카상업대학(大阪商業大學) 비교지역연구소가 동경대학(東京大學)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달 간에 걸쳐 일본 거주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판 총합사회조사(日本版総合社会調査;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로 약칭)” 자료 분석을 통해 두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절 서론에 이어 II절에서는 “55년 체제” 붕괴 전후 일본의 정당체제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시사세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7월 제20회 참의원 선거 이후 최근 5년간 자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III절에서는 2006년 JGSS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T-테스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속성, 주관적 이념 성향 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연 세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일본판 총합사회조사(JGSS) 2006년 자료는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연구센터(SSJ Data Archive)에서 2차 분석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임을 밝혀둔다(二次分析に当たり,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附属社会調査・データアーカイブ研究センター-SSJデータアーカイブから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2006, 大阪商業大学 JGSS研究センターの個票データの提供を受けました). 자료 사용을 허락해준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연구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소득수준, 주관적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IV절에서는 2006년 JGSS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T-테스트 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 후 본 논문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정당 정치, 정당 지지, 55년 체제, 자민당, 민주당, 일본판 총합사회조사(JGSS)

## I. 서 론

주지하듯이 1955년 10월 사회당의 통일과 11월 자민당의 창당으로 성립된 “55년 체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로 1990년대 초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커다란 재편성 없이 유지되었다.<sup>1)</sup> 이 체제는 그러나 1993년 7월 실시된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고 정권을 일본신당(日本新黨) 소속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수상으로 7개 정당(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민사당, 사민련)과 1개 회파(민주개혁연합)가 연합하여 구성한 내각에 넘겨주고 뒤이은 정당 재편 과정에서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붕괴하게 되었다(日本政治學會編 1996; Curtis 1999: 65-97; 이기완 2002: 105-44; 이이범 2003). 이후 일본의 정당 체제는 10여 년에 걸친 정당 간 이합집산과 창당, 해당(解黨), 분당, 합당이 반복되는 혼란기를 거쳐 2003년 9월 오자와 이치로(小沢—

1) 이 체제 하에서 자민당은 미일안보동맹체제 유지와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후원회와 다양한 외곽 지지 단체의 조직적 지지 그리고 게이단련(經團連)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창당 이래 줄곧 의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당은 미일안보동맹체제에 반대하고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 옹호를 주장하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인, 학생,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지, 그리고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日本労働組合総評議會)를 비롯한 노조의 조직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민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Curtis 1988; 손열 2007).

郎)가 이끌던 자유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칸 나오토(菅直人) 등이 이끄는 민주당의 합당을 계기로 “야당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고, 그해 11월 실시된 제43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당과 합당한 민주당이 기존보다 50석 가까이 늘어난 177석을 획득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자민당은 237석 획득)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을 두 축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현재의 형태로 재편되었다(고선규 2006a; 박철희 2006: 282-9; 이기완 2006).

본 논문은 이처럼 “55년 체제” 붕괴 이후 새롭게 재편된 일본 정당 체제에서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sup>2)</sup>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오사카상업대학(大阪商業大學) 비교지역연구소가 동경대학(東京大學)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달 간에 걸쳐 일본 거주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판 종합사회조사(日本版綜合社會調査;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이하에서는 JGSS로 약칭)” 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구체적으로 우선 2006년 JGSS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T-

- 
- 2) 본 논문은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여론조사나 사회조사 등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자민당” 또는 “민주당”을 선택한 유권자를 일컫는 용어로 단순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밝힌 유권자들로 “지지 정당 없음” 또는 “잘 모름” 등으로 응답한 “비정당지지자(非政黨支持者)”에 비해 강한 “정당 일체감(identification)”을 갖는 정당의 핵심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다.
- 3) “일본판 종합사회조사”는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2000년부터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그리고 2008년부터는 오사카상업대학 JGSS 연구센터 단독으로) 미국의 국립여론조사센터(NORC)가 197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를 모델로 일본인의 의식과 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대규모의 사회 조사로 현재까지 2회의 예비조사와 7회의 본 조사(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8)가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2년에 1회씩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계속 설문과 시사 문제에 대한 시사 설문, 공모 설문, 국제비교를 위한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와의 공통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세대 구성, 가족 관계, 생활 습관, 기본적인 생활의식, 정치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2003년부터 조사표를 A표와 B표 두 종류로 나누어 A표는 계속 설문과 시사 설문을, 그리고 B표는 공모 설문과 EASS 공통 설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테스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속성(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연세대 소득수준)과 주관적 이념 성향 등 요인과 정당 지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1993년 “55년 체제” 붕괴 이후 10여 년에 걸친 정당 재편 과정을 거쳐 자민당과 민주당을 두 축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현재의 형태로 재편된 일본의 정당 체제가 어떠한 지지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경험적 1차 자료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거결과 집합자료 분석과 문헌자료 분석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국내 학계의 기존 연구(정진민 1997; 권순미 2003; 이현출 2003; 이이범 2003, 2004, 2006; 이기완 2006, 2008; 조재욱 2006; 박철희 2006; 고선규 2006a, 2006b)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 선거결과 집합자료가 아닌 경험적 1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공명선거추진협회(明るい選挙推進協会)”에서 2000년 6월 25일의 중의원 선거 직후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현출(2002)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물론 일본 학계의 경우 선거조사 분석과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속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소속 단체, 주거 형태, 주거 연수 등), 주관적 이념 성향, 쟁점에 대한 태도, 업적 평가,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의 요인과 정당 지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정당의 지지 구조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猪口孝 1983; 三宅一郎 1985, 1995, 1998, 2001; 菅沢文明 1986; 岩淵美克 1986; 小林良彰 1987, 1991, 1997; 西澤由隆 1992, 2001; 十川宏二 1993; 荒木俊夫 1994; 蒲島郁夫 2004). 그러

---

2006년 조사의 경우 2006년 9월 1일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 8,000명(A표 4002명; B표 3,99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2,124명의 A표와 2,130명의 B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A표, B표 각각 59.8%를 기록하였다. 표본 추출은 전국을 우선 6블록으로 나누고 이어 시군 규모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2006년 이전 조사는 3단계)로 나눈 뒤 인구비례에 따라 526 지점을 추출한 후 각 지점 마다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등간추출법을 통해 14~16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들 연구 가운데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오래전에 이루어져 2003년 11월 제43회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의 정당 체제가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을 중심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현재의 형태로 재편된 이후 정당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2006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된 JGSS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당체제가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을 중심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현재의 형태로 재편된 이후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절에서는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정당체제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지지통신사(時事通信社)가 매달 실시해오고 있는 “시사세론조사(時事世論調査)”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7월 11일 제20회 참의원 선거 이후 최근 5년간 자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III절에서는 2006년 JGSS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T-테스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속성, 주관적 이념 성향 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후 이러한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연 세대 소득수준, 주관적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IV절에서는 2006년 JGSS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과 T-테스트 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 후 본 논문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정당체제 변화와 최근 5년간 정당 지지율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자.

4) JGSS 2006년 자료는 2009년 2월 17일 2차 분석을 위해 공개되었다. 참고로 국내 학계는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이 자료에 근거하여 자민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임을 밝혀둔다.

## II. “55년 체제” 붕괴와 일본 정당체제 재편

“55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전후 정당체제는 1955년 2월 실시된 제27회 중의원 선거에서 혁신세력이 의석수를 크게 늘리고 이후 1955년 10월 “우파 사회당”과 “좌파 사회당”이 사회당으로 통합하여 의회(중의원)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의석수(156석)를 차지함에 따라 위기를 느낀 두 보수 정당, 즉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자민당을 창당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이 체제 하에서 보수 세력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혁신 세력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이념적, 정책적으로 대립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창당된 민주사회당(1960년), 공명당(1964년), 신자유클럽(1976년) 등의 군소정당이 양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도 세력을 그리고 공산당이 급진 좌파 세력을 대변하고 있었다(Curtis 1988). 이처럼 자민당과 사회당을 두 축으로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의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형태로 유지되던 “55년 체제”는 1990년대 들어 일련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당내 갈등으로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일본신당(日本新黨), 신생당(新生黨), 신당사키가케(新黨さきがけ) 등을 창당하면서 보수 세력의 분열을 가져오고,<sup>5)</sup> 그리고 “55년 체제” 하에서 혁신 세력을 대변하던 사회당이 1994년 6월 자민당 주도의 연립정권에 참여한 후 지지층 이탈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된 1996

- 5) 자민당의 부정부패 스캔들에 항의하여 자민당을 탈당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의원이 1992년 창당한 일본신당은 1993년 실시된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 35석을 획득할 정도로 선전하였으나 이후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의 수상을 맡았던 호소카와 총리가 사가와큐빈(佐川急便)으로부터 1억 엔을 빌린 사실이 밝혀진 후 물러나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창당한 신진당에 합류하면서 1994년 12월 해산하였다. 또한 정치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자민당을 탈당한 하타 스토무(羽田孜)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한 자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1993년 6월 창당한 신생당도 1993년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 55석을 획득할 정도로 선전하였으나 소속 의원 대부분이 1994년 12월 오자와가 창당한 신진당에 합류하면서 해산하였다. 마찬가지로 당내 갈등으로 자민당을 탈당한 타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등 10여 명의 자민당 의원이 1993년 6월 결성한 신당사키가케도 1993년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 13석을 획득할 정도로 선전하였으나 이후 소속 의원 일부가 1996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와 칸 나오토(菅直人) 주도로 창당한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당세가 약화되었고 결국 2002년 해산하였다(이시카와 마스미 2006: 228-33).

년 10월 제41회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에서 단 4석(비례대표 11석 포함 총 15석)만을 획득할 정도로 몰락하면서 붕괴하게 되었다(日本政治學會編 1996; Curtis 1999: 65-97; 이기완 2002: 105-44; 이이범 2003).<sup>6)</sup>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에서는 한동안 정당 간 이합집산과 창당, 해당, 분당, 합당이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자민(非自民) 세력을 결집하려는 노력은 1994년 12월 10일 신진당(新進黨) 창당으로 이어졌다. 주지하듯이 신진당은 당내 갈등으로 자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의원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공명신당, 자민당 탈당 그룹 및 무소속 의원들을 결집하여 1994년 12월 10일 창당한 정당으로서 1995년 7월 23일 치러진 제17회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구에서 제1당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후 1996년 10월 20일 치러진 제41회 중의원 선거에서 156석을 획득하여 239석을 획득한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중의원 선거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차기 선거를 고려해 자민당으로 옮겨가고 당파 간 주도권 쟁탈이 이어지면서 신진당은 결국 1997년 12월 27일 6개의 소규모 정당들로 분열되었다(이시카와 마스미 2006: 242-3). 이 시기 오자와와의 갈등으로 신진당을 탈당한 하타 전 수상은 1996년 12월 26일 태양당(太陽黨)을 창당하였고, 1997년 6월 15일 신진당을 탈당한 이래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호소카와 전 수상도 12월 26일 신당 프롬화이브(From Five)를 결성하였다(이기완 2006: 11).

신진당 해체 이후 비자민(非自民) “야당” 세력을 결집하려는 노력은 1998년 4월 28일 새로운 민주당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원래 민주당은 1996년 10월 20일의 제41회 중의원 선거를 앞둔 9월 28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칸 나오토(菅直人), 에다 사츠기(江田五月), 요코미치 타카히로(横路孝弘) 등이 사회당, 사민련, 사키가케에서 이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민당과 신진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과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혁신 세력에 대항하여 “리버럴”한 제3

6) “55년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던 사회당은 1994년 6월 사키가케와 함께 자민당 주도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후 소속 의원 상당수가 탈당하여 민주당 창당에 합류(1996년 9월)하고 1994년 3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된 1996년 10월 총선거에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1996년 1월) 임해 비례대표 11석을 포함하여 15석만을 얻는 참패를 경험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할 정도로 몰락하였다(이시카와 마스미 2006: 234-5).

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정당이었다(박철휘 2006: 284-6). 민주당은 1996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 17석과 비례대표 35석을 포함, 총 52석을 획득하여 자민당(239석)과 신진당(156석)에 뒤이은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자민당과 신진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당세를 확장하지 못한 채 정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신진당에서 분열해 나온 세력 가운데 오자와 중심의 자유당 그룹과 공명당 그룹을 제외한 보수중도계 그룹, 즉 민정당(民政黨),<sup>7)</sup> 신당우애(新黨友愛), 민주개혁연합(民主改革聯合) 그룹이 1998년 4월 27일 구민주당(舊民主黨)과 결합하면서 민주당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1998년 7월에 실시된 제18회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구에서 21.75%의 득표율로 12석의 비례대표구 의석을 차지하여 25.17% 득표율로 14석을 차지한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의 위치를 점할 정도로 성장하였다(선거구에서는 15명이 당선되어 비개선 20명을 포함하여 총 47명의 참의원 의석 확보). 이후 민주당은 2003년 9월 오자와가 이끌던 자유당과 합당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뒤이어 2003년 11월에 실시된 제43회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보다 50석 가까이 늘어난 177석을 획득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자민당은 237석 획득)(이시카와 마스미 2006: 323).

이처럼 비자민(非自民) 세력이 민주당으로 결집하여 당세를 확장함에 따라 1993년 “55년 체제” 붕괴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일본의 정당체제도 서서히 자민당과 민주당 양당을 두 축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형태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체제는 2004년 7월 실시된 제20회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득표율(39.1%)과 비례대표구 득표율(37.8%)에서 자민당(선거구 득표율 35.1% 비례대표구 득표율 30.3%) 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이시카와 마스미 2006: 326). 이하에서는 일본 지지통신사가 1960년 6월부터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매달 실시해오고 있는 “시사세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7월의 제20회 참의원 선거 이후 최근까지 자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에

7) 민정당은 하타 전 수상이 이끌던 태양당과 호소카와 전 수상이 이끌던 프롬화이브, 그리고 신진당을 탈당한 카노가 이끌던 국민의소리(國民の聲)가 결집하여 1998년 1월 23일 창당하였다.



대해 살펴보자.

〈표 1〉은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지지통신사의 “시사세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이 표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율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 조사까지 대체적으로 20%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05년 9월 11일 제44회 중의원 선거에서 우정민영화를 이슈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후 실시된 2009년 9월 조사에서는 31.9%에 이를 정도로 지지율이 급증하였다. 이후 자민당 지지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물러날 때까지(2006년 9월 26일) 대체적으로 20%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점차 하락하여 2006년 7월에는 23.9%에 이를 정도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제44회 중의원 선거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던 자민당 지지율은 고이즈미 수상이 물러나고 아베(安倍) 내각이 들어서면서 새 내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상승하여 2006년 10월 조사에서는 29.3%에 이를 정도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하락하여 2007년 6월 조사에서는 19.2%로 하락하였다. 이후 후쿠다(福田) 내각(2007년 9월 26일~2008년 9월 24일)과 아소(麻生) 내각(2008년 9월 24일~2009년 9월 16일)을 거치며 자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7월 조사에서는 15.1%에 이를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1〉에 의하면 2004년 8월 제20회 참의원 선거 이후 고이즈미 내각 시기 자민당 지지율은 평균 24.9%이며, 아베 내각 시기는 평균 22.9%, 후쿠다 내각 시기는 평균 21.6%, 아소 내각 시기는 평균 19.6%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자민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제20회 참의원 선거(2004년 7월 11일) 직후 실시된 2004년 8월 조사에서 15.7%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05년 7월 조사에서는 7.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2005년 9월 제44회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다시 상승하여 2005년 9월 조사에서는 14.8%로 상승하였다.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여 고이즈미 내각 시기 대체적으로 10%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07년 7월 29일 실시된 제21회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8월 조사에서는 19.0%에 이를 정도로 상승하였다. 이후 15%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민주당 지지율은 후쿠다 내각과 아소 내각을 거치며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45회 중의원 선거를 한달 반 정도 앞두고 실시된 2009년 7월 조사에서는 18.6%까지 상승하여 창당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을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표 1〉에 의하면 2004년 8월 제20회

〈표 1〉 최근 정당지지율(%) 추이: 2004년 8월~2009년 10월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모름
고 이 즈 미  내 각	2004년 8월	20.5	15.7	4.0	1.6	1.4	0.0	55.2	1.6
	2004년 9월	22.5	13.8	4.8	2.0	1.0	0.0	53.7	2.2
	2004년 10월	20.4	11.6	4.8	1.6	1.1	0.1	57.4	3.1
	2004년 11월	21.7	10.4	3.0	2.2	1.9	0.1	58.5	2.1
	2004년 12월	22.5	10.9	2.9	1.6	1.2	0.0	59.1	1.9
	2005년 1월	24.4	10.4	3.3	2.0	1.7	0.0	55.7	2.5
	2005년 2월	22.2	10.6	4.5	1.8	0.6	0.1	57.5	2.7
	2005년 3월	22.0	10.3	3.3	1.5	1.5	0.15	58.9	2.5
	2005년 4월	23.0	11.0	2.8	1.4	0.6	0.1	57.4	3.7
	2005년 5월	22.6	9.0	3.7	1.6	1.2	0.1	58.7	3.1
	2005년 6월	21.5	8.1	3.3	1.7	1.1	0.1	62.0	2.0
	2005년 7월	22.9	7.5	5.1	2.2	1.0	0.1	58.9	2.2
	2005년 8월	24.1	10.2	4.1	1.4	1.0	0.0	56.4	2.8
	2005년 9월	31.9	14.8	4.4	2.3	1.6	0.5	42.1	2.4
	2005년 10월	29.2	11.4	4.2	1.4	1.0	0.2	51.3	1.3
	2005년 11월	30.7	9.1	3.5	1.9	0.9	0.0	51.4	2.4
	2005년 12월	31.5	9.7	3.3	1.6	1.9	0.1	50.7	1.3
	2006년 1월	29.7	8.4	4.2	1.8	0.7	0.1	52.4	2.8
	2006년 2월	25.9	8.0	3.3	2.1	1.3	0.2	57.0	2.0
	2006년 3월	26.0	8.8	4.1	2.2	1.3	0.2	55.3	2.2
2006년 4월	27.0	9.1	2.8	3.0	1.2	0.1	55.1	1.8	
2006년 5월	25.9	10.0	4.1	1.5	0.8	0.1	55.2	2.5	
2006년 6월	24.4	12.1	3.3	1.3	1.2	0.1	55.6	1.9	
2006년 7월	23.9	11.0	3.4	1.7	1.2	0.1	57.1	1.7	
2006년 8월	24.9	10.2	3.4	1.9	1.1	0.2	56.3	2.1	
2006년 9월	27.0	9.2	3.7	1.5	1.3	0.0	55.0	2.2	
평 균		24.9	10.4	3.7	1.8	1.2	0.1	55.5	2.3
아 베  내 각	2006년 10월	29.3	10.8	3.0	1.8	1.0	0.0	52.4	1.7
	2006년 11월	26.4	9.2	4.2	2.0	0.4	0.2	55.9	1.6
	2006년 12월	25.5	8.1	3.9	2.2	1.6	0.1	56.3	2.4
	2007년 1월	24.2	8.3	2.7	1.2	0.8	0.5	60.1	2.2
	2007년 2월	21.4	9.7	4.0	1.4	1.1	0.4	60.4	1.9
	2007년 3월	21.6	7.8	3.2	1.9	1.4	0.1	62.4	1.7
	2007년 4월	22.8	9.1	3.9	1.4	1.3	0.1	59.7	1.7
	2007년 5월	22.8	9.5	3.7	1.5	1.6	0.1	58.3	2.4
2007년 6월	19.2	11.0	4.2	1.3	0.8	0.2	61.9	1.5	

〈표 1〉 계속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기타정당*	지지정당 없음	모름
	2007년 7월	19.7	12.8	3.6	1.1	1.1	0.1	59.0	2.7
	2007년 8월	21.0	19.0	3.3	2.3	0.9	0.5	51.4	1.6
	2007년 9월	20.3	17.1	3.5	2.3	1.2	0.5	52.3	3.0
	평 균	22.9	11.0	3.6	1.7	1.1	0.2	57.5	2.0
후쿠다 내각	2007년 10월	23.4	16.2	4.0	2.0	0.8	0.4	51.4	1.7
	2007년 11월	23.4	16.3	3.7	1.2	1.2	0.1	52.2	1.9
	2007년 12월	22.2	15.9	2.9	1.4	1.0	0.2	54.2	2.2
	2008년 1월	22.9	15.4	3.9	1.3	0.7	0.1	53.8	1.9
	2008년 2월	23.0	15.1	2.6	1.2	0.8	0.0	55.9	1.3
	2008년 3월	21.8	13.6	3.9	1.8	1.3	0.2	56.5	1.0
	2008년 4월	22.9	13.1	2.6	1.7	0.7	0.4	56.9	1.8
	2008년 5월	19.5	15.8	3.1	2.3	0.8	0.2	56.4	1.9
	2008년 6월	20.3	14.5	3.2	1.7	0.7	0.2	57.2	2.2
	2008년 7월	18.1	15.6	3.2	1.8	1.0	0.4	57.7	2.4
	2008년 8월	20.7	15.0	3.3	2.1	0.8	0.0	55.8	2.4
	2008년 9월	20.9	12.8	3.2	2.2	0.5	0.4	56.9	3.2
	평 균	21.6	14.9	3.3	1.7	0.9	0.2	55.4	2.0
아소 내각	2008년 10월	23.4	14.7	4.3	1.4	0.7	0.0	52.7	2.7
	2008년 11월	23.8	14.3	4.2	1.4	0.8	0.4	52.2	3.0
	2008년 12월	18.6	13.4	4.3	2.0	1.1	0.1	58.2	2.3
	2009년 1월	18.7	15.2	3.3	2.0	1.4	0.2	56.9	2.2
	2009년 2월	18.4	16.2	3.1	1.6	1.1	0.3	56.5	2.8
	2009년 3월	20.8	13.9	3.5	1.7	1.1	0.1	56.9	2.2
	2009년 4월	21.4	14.0	3.3	1.3	0.5	0.3	57.4	1.9
	2009년 5월	19.9	14.2	3.3	1.7	0.4	0.0	58.5	2.0
	2009년 6월	18.4	15.5	3.4	1.3	0.9	0.1	58.1	2.3
	2009년 7월	15.1	18.6	4.6	1.7	1.3	0.2	55.7	2.8
	2009년 8월	17.1	18.4	4.5	1.9	1.6	0.1	53.0	3.4
	평 균	19.6	15.3	3.8	1.6	1.0	0.2	56.0	2.5
	하토야마 내각	2009년 9월	16.6	26.3	4.3	2.3	1.1	0.7	47.3
2009년 10월		17.7	29.4	3.5	2.2	1.1	0.1	43.9	2.1
평 균		17.2	27.9	3.9	2.3	1.1	0.4	45.6	1.8

\*國民新黨, 新黨日本 등 군소정당 포함.

자료출처: 中央調査社, 『中央調査報』, No. 563(2004년 8월)~No. 618(2009년 3월).

http://www.crs.or.jp/backno.htm 검색일: 2009년 8월 15일.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조사는 www.jiji.com에서 검색.

참의원 선거 이후 고이즈미 내각 시기 민주당 지지율은 평균 10.4%이며, 아베 내각 시기는 평균 11.0%, 후쿠다 내각 시기는 평균 14.9%, 아소 내각 시기는 평균 15.3%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을 얻는 역사적 대승을 거둔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더욱 상승하여 2009년 9월 조사에서는 26.3%, 10월 조사에서는 29.4%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sup>8)</sup> 반면 지난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자민당은 2009년 9월 조사의 경우 16.6%, 10월 조사의 경우 17.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공명당 지지율은 최근 5년간 대체적으로 3~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각각 1~2% 사이, 그 밖의 기타 정당들이 1%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5년간 정당 지지율 추이는 2003년 11월 제43회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자민당과 민주당을 두 축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형태로 재편된 일본의 정당 체제가 자민당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JGSS 2006년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일본 정당 체제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III.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층 특성 비교

우선 JGSS 2006년 조사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표 2>는 JGSS 2006년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기 위해 “1. 자민당, 2. 민주당, 3. 공명당, 4. 공산당, 5. 사민당, 6. 그 밖의 정당, 7.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 없음(아래 표에서는 ‘지지 정당 없음’으로 표기), 8. 모름” 등 8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현

8)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 115석에서 무려 193석이 증가한 308석을 획득하여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 반면 자민당은 선거 전 300석에서 181석이 줄어든 119석을 확보하여 창당 후 처음으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한편 공명당은 선거 전 31석에서 10석이 줄어든 21석을 획득하였고, 공산당이 9석, 사민당이 7석, 그 밖의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16석을 확보하였다.

(표 2) JGSS-2006 조사 정당지지율(%)

	A조사표(N=2,124)		B조사표(N=2,130)		A+B(N=4,254)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자민당	642	30.2	562	26.4	1,204	28.3
민주당	259	12.2	219	10.3	478	11.2
공명당	77	3.6	82	3.8	159	3.7
공산당	46	2.2	29	1.4	75	1.8
사민당	27	1.3	35	1.6	62	1.5
기타 정당	6	0.3	4	0.2	10	0.2
지지 정당 없음	879	41.4	1,003	47.1	1,882	44.2
모름	166	7.8	180	8.5	346	8.1
무응답	22	1.0	16	0.5	38	0.9

재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여 얻은 회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자는 A조사와 B 조사를 합해 총 1,204명으로 전체 4,254명의 유효 응답자 가운데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는 478명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명당 지지자가 3.7%, 공산당 지지자와 사민당 지지자가 각각 1%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무당파층”이 1,882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다.<sup>9)</sup>

한편 <표 3>은 성별, 연령,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5분위), 주관적 연 세대 소득수준(5분위), 이념적 성향(5분위), 학력을 기준으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값을 T-테스트를 통해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경우(남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하고 여성에게 2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 평균값이 1.50이면 남녀가 동수인 것을, 1.50보다 낮으면 남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1.50보다 높으면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민당 지지자의 평균값은 1.52로 전체 평균 1.53과 별 차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9)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의 시사세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의 2006년 10~12월 지지율 평균은 각각 27.1%, 9.4%, 3.7%, 2.0%, 1.0%) 자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1.2%, 1.8%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당시 지지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T-테스트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sup>3)</sup>	전체평균 (N=4,254)
종속변수 <sup>1)</sup>	독립변수					
성별	자민당 지지자	1.52	0.500	6.102	0.000***	1.53
	민주당 지지자	1.36	0.480			
연령	자민당 지지자	58.35	15.492	2.445	0.015*	52.58
	민주당 지지자	56.28	16.112			
거주지 도시 규모	자민당 지지자	2.54	0.951	3.682	0.000***	2.44
	민주당 지지자	2.35	0.964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5분위)	자민당 지지자	3.31	0.945	-2.744	0.006**	3.50
	민주당 지지자	3.47	1.090			
연 세대 소득수준 (5분위)	자민당 지지자	2.80	1.052	-2.542	0.011*	2.71
	민주당 지지자	2.66	0.985			
이념적 성향 (5분위)	자민당 지지자	2.63	1.266	-9.691	0.000***	3.07
	민주당 지지자	3.22	1.057			
학력 <sup>2)</sup>	자민당 지지자	2.36	1.030	-1.655	0.098	2.45
	민주당 지지자	2.46	1.092			

1) 성별: 남성=1, 여성=2; 연령: 20~89; 거주지 도시 규모: 도시=1, 20만 이상 도시=2, 20만 이하 도시=3, 지방 정촌=4;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상=1, 중상=2, 중중=3, 중하=4, 하=5; 연 세대 수입: 평균 보다 매우 낮음=1, 평균 보다 약간 낮음=2, 평균=3, 평균 보다 약간 높음=4, 평균 보다 매우 높음=5; 이념적 성향: 보수=1, 혁신=5.

2) 학력은 자신이 통학한 최종 학교가 1947년 학제개편 이전의 구제(舊制) 학교인 응답자 428명과 모름 13명, 무응답 13명을 제외하고, 신제(新制) 학교라고 응답한 응답자 3,766명을 대상으로 중학교=1, 고교=2, 고전(高專) 또는 단대(短大)=3, 대학=4, 대학원=5의 값을 부여하여 자민당 지지자 1,004명과 민주당 지지자 420명의 평균값을 구한 결과.

3) 유의 수준: \*\*\*  $p < 0.01$ , \*\*  $p < 0.01$  \*  $p < 0.05$

평균값은 1.36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민당 지지자의 평균 연령은 58.35세로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 연령 56.28세보다 약 2세 가량 높으며, 거주지 도시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거주지 도시 규모가 크며 4에 가까울수록 작다) 자민당 지지자의 평균값

은 2.54로 평균값이 2.35인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지방 소도시와 정촌(町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층에 속하며 5에 가까울수록 하층에 속한다) 자민당 지지자의 평균값은 3.31로 평균값이 3.47인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층에 속하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 세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연 세대 소득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5에 가까울수록 높다고 생각한다) 평균값이 2.80으로 평균값이 2.66인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 세대 소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할 경우(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며 5에 가까울수록 혁신적이다) 자민당 지지자의 평균값은 2.63으로 평균값이 3.22인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은 T-테스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특히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력의 경우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학력 평균은 각각 2.36과 2.46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T-테스트 결과는 이러한 평균값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상의 사회경제적, 이념적 변수들과 정당 지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성별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부터 살펴보자. <표 4>에 의하면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 비율은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남성에서의 지지율(15.5%)이 여성에서의 지지율(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JGSS 2000~2005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민당의 경우 2000~2005년 남녀 지지율을 보면 2000년 22.4% 대 18.9%, 2001년 27.2% 대 23.8%, 2002년 25.9% 대 20.9%, 2003년 34.3% 대 30.8%, 2005년 32.7% 대 27.7%로 상대적으로 남성에서의 지지율이 여성에서의 지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도 2000~2005년 남녀 지지율을 보면 2000년 8.9% 대 4.1%, 2001년 5.9% 대 3.5%, 2002년 5.1% 대 1.9%, 2003년 15.1% 대 9.1%, 2005년 15.8% 대 9.2%로 남성에서의 지지율이 여성에서의 지지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일본 사회에 아직 남성 중심의 문화가 남아있

〈표 4〉 사회경제적, 이념적 변수와 정당 지지율(%) 교차표

변수		자민	민주	공명	공산	사민	기타	무당파 <sup>1)</sup>	모름	무응답
성별	남성	29.0	15.5	3.2	1.8	1.4	0.2	43.1	5.0	0.8
	여성	27.7	7.5	4.2	1.7	1.5	0.3	45.2	10.9	1.0
연령대	20~29세	14.7	8.7	4.1	0.9	0.0	0.2	53.9	17.2	0.2
	30~39세	16.4	8.5	2.7	1.1	0.6	0.3	57.0	13.0	0.4
	40~49세	21.4	8.4	5.1	1.4	0.6	0.2	51.7	10.4	0.8
	50~59세	29.1	11.1	3.1	1.9	1.7	0.2	47.3	4.4	1.1
	60~69세	38.1	14.6	3.8	2.6	2.5	0.2	31.8	4.9	1.5
	70~79세	41.0	14.2	3.8	2.4	2.7	0.2	30.4	4.4	0.9
	80~89세	42.3	13.7	4.8	0.6	1.2	0.6	31.5	4.8	0.6
도시 규모	대도시 <sup>2)</sup>	24.1	13.0	4.1	2.5	0.7	0.2	48.0	6.5	0.9
	20만 이상 도시	27.1	11.6	2.5	2.1	1.5	0.1	44.7	9.7	0.7
	20만 이하 도시	29.0	10.4	4.2	1.3	1.8	0.3	43.8	7.9	1.2
	지방 정촌	35.9	10.2	4.0	1.4	1.6	0.2	38.1	8.4	0.2
계층 귀속 의식	상	55.0	10.0	0.0	0.0	0.0	0.0	30.0	5.0	0.0
	중상	36.1	12.7	2.2	2.2	2.4	0.2	40.4	3.1	0.7
	중중	32.0	11.4	3.4	1.1	1.2	0.2	42.2	7.7	0.8
	중하	24.2	11.2	4.6	2.2	1.7	0.3	46.5	8.5	0.7
	하	16.9	8.5	3.7	3.4	1.1	0.3	51.3	14.4	0.6
연세대 소득	평균보다 매우 낮음	22.8	11.6	4.3	3.6	1.2	0.2	43.9	10.9	1.4
	평균보다 약간 낮음	24.7	10.9	4.8	1.9	2.0	0.1	46.5	8.4	0.7
	평균	30.4	11.6	3.4	1.1	1.2	0.3	43.0	8.3	0.8
	평균보다 약간 높음	33.7	11.8	2.4	2.7	0.8	0.2	44.5	3.7	0.2
	평균보다 매우 높음	45.3	3.8	3.8	1.9	3.8	0.0	35.8	1.9	3.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7	7.2	3.4	0.7	0.0	0.0	21.4	5.2	1.4
	약간 보수적	45.9	8.4	3.4	0.6	0.5	0.1	36.1	4.8	0.3
	중도	23.5	10.1	3.8	0.7	0.9	0.1	49.3	11.0	0.5
	약간 혁신적	15.1	20.8	3.8	3.8	4.3	0.4	48.6	2.8	0.3
	혁신적	9.0	13.5	5.2	16.8	5.2	1.9	40.6	7.7	0.0
전체		28.3	11.2	3.7	1.8	1.5	0.2	44.2	8.1	0.9

1)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2) 대도시는 다음 16개 시를 포함: 삿포로(札幌), 센다이(仙台), 사이타마(さいたま), 치바시(千葉), 동경(東京), 요코하마(横浜), 가와사키(川崎), 시즈오카(静岡),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사카이(堺), 고베(神戸), 히로시마(広島), 기타큐슈(北九州), 후쿠오카(福岡).



고, 이러한 문화의 영향하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정치 문제에 더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sup>10)</sup>

둘째, <표 4>에 나타난 연령대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하여 20대에서의 지지율이 14.7%인 반면 80대에서의 지지율은 42.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도 자민당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민당 지지나 민주당 지지나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른바 세대에 따라 지지 정당이 달라지는 “세대 효과(generation effect)”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몇 차례의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0~30대 젊은층에서 자민당 보다 앞서거나 대등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현출 2002: 262)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sup>11)</sup> 그러나 이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지만 아직 민주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이들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표 4>에 나타난 거주지 도시 규모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율은 도시 규모가 대도시에서 지방 정촌으로 작아짐에 따라 상

10) 실제로 <표 4>에 의하면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48.1%이지만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56.1%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정치에 더 무관심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는 왜 자민당 지지자 보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11)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세대 효과”는 “정당 지지자”와 “비정당 지지자”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에 의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정당 지지자 비율은 20대에서 71.1%, 30대에서 70.0%, 40대에서 62.1%, 50대에서 51.7%, 60대에서 36.7%, 70대에서 34.8%, 80대에서 36.3%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반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의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승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정반대로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지지율은 24.1%이지만 도시규모가 작아지며 상승하여 지방 정촌에서의 지지율은 35.9%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도시규모가 작아지며 지지율이 하락하여 대도시 지역에서 13.0%, 지방 정촌에서 10.2%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이 중소도시와 지방 정촌에서 강세를 보이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2000년 이후 실시된 몇 차례의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도시 지역에서 자민당에 앞서거나 대등할 정도로 선전하고 자민당이 중소도시와 지방에서 압승을 거둔 소위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으로 이어졌다(이현출 2002: 258; 蒲島郁夫 2004: 315-21; 고선규 2006a: 322-3).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여촌야도” 현상은 자민당이 1955년 창당 이래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반면 민주당이 1996년 결성 이후 주로 대도시 지역 사무직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2)</sup>

넷째, <표 4>에 나타난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율은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중상, 중중, 중하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12)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은 농촌지역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왔다. 1958년 이후 자민당 득표율을 도시화 정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은 1958년 선거에서 대도시 지역 33.6%, 도시지역 43.5%, 농촌지역 53.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1993년 선거에서 대도시 지역 15.5%, 도시지역 26.0%, 농촌지역 36.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1993년 선거의 경우 자민당 득표율은 1958년 선거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의 득표율은 대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55년 체제” 붕괴 이후에도 이어져 1996년, 2000년, 2003년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약 70% 가까이가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1996년 창당 이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의석수를 확보해왔다.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 중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였고 농촌 지역 비율은 47.1%였으며 2000년 선거에서 도시지역은 70.9% 농촌지역은 29.1%로 도시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고선규 2006a, 321-3).

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55.0%에 이르고 있지만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16.9%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중상, 중중, 중하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 세대 소득수준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율은 세대 소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상승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세대 소득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경우 세대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45.3%이지만 평균보다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22.8%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진 않지만 연 세대 소득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3.8%로 급락하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 지지율이 경제적으로(주관적 계층 귀속의식과 세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올라가고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가는 이유는 고이즈미 총리 이후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소위 “신자유주의 개혁”과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하층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에 실망하여 자민당 지지를 철회하고 무당파층으로 돌아서거나 또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이념적 성향에 따른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율은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높아지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혁신적 또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60.7%에 이르고 있지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16.9%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보수에서 혁신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여 “약간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민당 지지율(15.1%)보다 높은 20.8%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지율은 다시 13.5%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자민당에 반대하는 혁신적 유권자의 상당수가 공산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스스로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

〈표 5〉 학력에 따른 정당지지율(%)<sup>1)</sup>

	중학교	고교	短大 <sup>2)</sup>	대학	대학원	舊制 <sup>3)</sup>	전체
자민당	33.4	26.6	23.3	24.9	20.5	41.6	28.3
민주당	13.8	10.0	10.6	12.3	12.8	12.3	11.2
공명당	5.5	3.9	3.4	2.1	3.8	4.5	3.7
공산당	3.0	1.4	1.8	2.0	2.6	1.3	1.8
사민당	1.8	1.5	0.6	1.1	1.3	2.4	1.5
기타 정당	0.0	0.2	0.2	0.4	0.0	0.2	0.2
지지 정당 없음	32.3	46.5	47.4	51.3	56.4	31.8	44.2
모름	9.4	9.0	11.6	5.4	2.6	4.5	8.1
무응답	0.7	0.9	1.2	0.4	0.0	1.3	0.9

1) 본인이 최종적으로 통학한 학교를 기준으로 작성. 전체 유효 응답자 4,254명 가운데 “모름” 응답자 13명과 “무응답자” 13명 제외.

2) 단기대학(短期大學), 고등전문학교(高等專門學校), 전수학교(專修學校), 전문학교(專門學校) 포함.

3) 일제시기 보통소학교(尋常小學校), 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 중학교(中學校), 실업상업고교(實業學商業高校), 사범학교(師範學校), 고교(高校), 전문학교(專門學校),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 대학(大學), 대학원(大學院) 포함. 연령대로는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를 포함.

산당 지지율은 16.8%로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적 요인의 중요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55년 체제”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음을 시사해 준다.<sup>13)</sup>

13) 이념적 요인은 “55년 체제” 하에서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三宅一郎 198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5년 체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로 자민당은 미일안보동맹체제 유지와 자위대 합헌을 주장하고 반면 사회당은 미일안보동맹체제에 반대와 자위대 위헌, 그리고 “평화헌법” 옹호를 주장하며 두 당 사이에 선명한 이념적 보-혁 대립 축을 형성하였다(大巖秀夫 1999, 9). 이러한 이념적 대립 축은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결되고 1993년 “55년 체제” 붕괴와 함께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일본 정당 정치에서 갖는 중요성을 많이 상실하였다. 그러나 1993~1996년 사이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실시한 7차례 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미야케(三宅一郎 1998,

마지막으로 학력과 정당지지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표 5>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통학한 학교를 기준으로 한 정당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율은 최종 통학 학교가 1947년 학제개편 이전의 구제(舊制) 학교인 응답자(연령대로는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를 포함)를 제외할 경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인이 최종적으로 통학한 학교가 중학교인 응답자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3.4%인 반면 최종 통학 학교가 대학원인 응답자 사이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0.5%를 기록하고 있다.<sup>14)</sup> 반면 민주당의 경우 최종 통학 학교가 중학교, 대학, 대학원인 응답자 사이에서의 지지율이 고교, 단대인 응답자 사이에서의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긴 하나 학력 변수와 지지율 사이에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실시된 몇 차례의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현출 2002, 262)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고학력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지만 아직 민주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공고화하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

53-72)의 연구는 이념적 요인이 “55년 체제” 붕괴 이후에도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주요한 변수로 남아있음 보여준다. 이외에 많은 연구(이현출 2002, 268-71)들이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JGSS 2006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념적 요인이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주요한 변수로 남아있음 보여준다.

- 14) 이와는 달리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 비율은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 의하면 최종 통학 학교가 중학교인 응답자에서 무당파층 비율은 32.3%인 반면 최종 통학 학교가 대학원인 응답자에서 무당파층 비율은 무려 56.4%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달튼(Dalton 2000, 32-3), 잉글하트(Inglehart 1990, 366) 등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당에 의존하여 정치적 판단을 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정당에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표 6〉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Wald	Sig.	Exp(B)
성별	.716	.116	38.323	.000***	2.046
연령	.007	.004	3.460	.063	1.007
도시규모	.214	.059	13.119	.000***	1.239
계층귀속의식	-.025	.062	.156	.693	.976
세대 소득수준	.168	.061	7.667	.006**	1.183
이념적 성향	-.386	.049	62.033	.000***	.680
상수	-.271	.426	.404	.525	.763

-2 Log Likelihood = 1868.157; Chi-Square = 139.690, 적중률 71.5%; \*\*\*  $p < .001$ ; \*\*  $p < .01$

예상된다.

한편 〈표 6〉은 지지 정당 선택에 미치는 (학력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이념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자민당 지지자에게 1의 값을 부여하고 민주당 지지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실시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성별, 연령,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연 세대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등 여섯 가지 변수 가운데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 등의 변수가  $p < .001$  수준에서 지지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표 6〉은 연 세대 소득수준이  $p < .01$  수준에서 지지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령과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등의 변수는 지지 정당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T-테스트 검정 결과(〈표 3〉)는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거주지 도시 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연 세대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특히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학력은 두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이념적 변수들과 정당 지지에 대한 교차표를 분석한 결과(〈표 4〉와 〈표 5〉)는 자민당 지지율이 남성일수록, 고령일수록,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에 속할수록, 연 세대 소득수준이 상층에 속할수록, 이념적 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

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남성일수록, 고령일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 중층, 중하층에 속할수록, 연 세대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은 층에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약간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인 층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이 지지 정당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표 6〉)는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 연 세대 소득수준이, 특히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령과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등의 변수는 지지 정당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자민당과 민주당 정당 지지층을 비교하는데 있어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 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IV.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층 정치적 견해와 조직 신뢰도 비교

이 절에서는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조직 신뢰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표 7〉은 고령자 생활보장, 고령자 의료·개호, 자녀 교육비, 보육·육아 등의 문제가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인지 아니면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인지 묻고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에 가까울수록 1로 응답하고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에 가까울수록 5로 응답하게 한 A조사표 질문에 대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응답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위 문제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5에 가까울수록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값은 3이다). 이 표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고령자 생활보장, 고령자 의료·개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 교육과 보육·육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자가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T-테스트 결과는 특히 고령자 생활보장과 고령

〈표 7〉 자민당 지지자(N=642)와 민주당 지지자(N=259) 비교(A조사표)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전체평균 (N=2,124)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령자 생활보장 (생활비)	자민당 지지자	3.64	1.3029	-4.386	0.000***	3.88
	민주당 지지자	4.03	1.1776			
고령자 의료·개호	자민당 지지자	3.90	1.2238	-4.184	0.000***	4.09
	민주당 지지자	4.26	1.0080			
자녀 교육비	자민당 지지자	2.68	1.4387	-2.112	0.035*	2.88
	민주당 지지자	2.91	1.5211			
보육·육아	자민당 지지자	2.64	1.4676	-2.436	0.015*	2.82
	민주당 지지자	2.90	1.4856			

\*\*\* p&lt;.001; \*\* p&lt;.01; \* p&lt;.05

〈표 8〉 자민당 지지자(N=562)와 민주당 지지자(N=219) 비교(B조사표)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전체평균 (N=2,124)
종속변수	독립변수					
고령자 생활보장 (생활비)	자민당 지지자	3.47	1.2581	-2.798	0.005**	3.74
	민주당 지지자	3.75	1.2363			
고령자 의료·개호	자민당 지지자	3.72	1.2263	-2.823	0.005**	3.93
	민주당 지지자	4.00	1.2396			
자녀 교육	자민당 지지자	2.75	1.4284	-1.843	0.066	2.93
	민주당 지지자	2.96	1.5154			
보육·육아	자민당 지지자	2.72	1.4809	-1.660	0.097	2.83
	민주당 지지자	2.92	1.5440			

\*\*\* p&lt;.001; \*\* p&lt;.01; \* p&lt;.05

자 의료·개호 등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가 국가와 자치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B조사표 결과를 분석한 〈표 8〉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 8〉은 자녀 교육과 보육·육아 등의 문제에 대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9〉 자민당 지지자(N=642)와 민주당 지지자(N=259) 비교(A조사표)

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전체평균 (N=2,124)
종속변수	독립변수					
빈부해소정책 찬반	자민당 지지자	2.30	1.1394	2.577	0.010*	2.26
	민주당 지지자	2.08	1.2143			

\*\*\* p<.001; \*\* p<.01; \* p<.05

한편 〈표 9〉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1. 찬성, 2. 어느 쪽인지 말하자면 찬성, 3. 어느 쪽인지 말 못함, 4. 어느 쪽인지 말하자면 반대, 5. 반대”의 응답을 제시하고 얻은 회답 결과를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로 나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가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최근 일본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격차”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에 대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의견을 비교해보자. 〈표 10〉은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환경문제, 범죄단속, 교육, 안보, 사회보장, 고용대책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해외원조와 토목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표 10〉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환경문제, 범죄단속, 교육, 사회보장, 고용대책 등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안보, 해외원조, 토목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감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고이즈미 총리 이후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보장 축소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고용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도 54.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 분야와 마찬가지로 고이즈미 총리 이후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노동유연성” 증가 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시사해준다.

〈표 10〉 자민당(N=642)과 민주당 지지자(N=259)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 비교(%)\*

항목	구분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모름	무응답
환경문제	자민당 지지자	5.3	29.9	29.4	33.2	2.2
	민주당 지지자	5.8	23.6	44.8	23.9	1.9
범죄단속	자민당 지지자	3.1	24.5	42.5	27.9	2.0
	민주당 지지자	2.3	22.4	51.7	22.4	1.2
교육	자민당 지지자	3.6	36.1	35.7	22.1	2.5
	민주당 지지자	1.9	34.4	42.9	19.3	1.5
안보	자민당 지지자	5.0	34.7	28.5	28.3	3.4
	민주당 지지자	13.1	34.7	25.5	24.3	2.3
해외원조	자민당 지지자	47.8	24.5	1.7	24.0	2.0
	민주당 지지자	63.3	18.9	3.1	13.1	0.5
토목사업	자민당 지지자	24.9	34.1	13.2	24.3	3.4
	민주당 지지자	42.5	27.0	13.5	13.9	3.1
사회보장	자민당 지지자	2.0	21.0	60.0	14.5	2.5
	민주당 지지자	3.9	13.1	73.4	8.9	0.8
고용대책	자민당 지지자	3.6	26.9	41.1	26.5	1.9
	민주당 지지자	3.9	20.5	54.8	18.9	1.9

〈표 11〉 자민당 지지자(N=642)과 민주당 지지자(N=259) 조직 신뢰도 비교(%)\*

조직	구분	매우 신뢰	약간 신뢰	거의 신뢰 안함	모름	무응답
중앙관청	자민당 지지자	4.5	45.0	23.2	25.9	1.4
	민주당 지지자	2.3	38.6	43.6	14.3	1.2
국회의원	자민당 지지자	4.7	47.4	29.0	18.1	0.9
	민주당 지지자	2.3	30.9	51.4	14.7	0.8
지방의회의원	자민당 지지자	5.9	44.7	30.7	17.3	1.4
	민주당 지지자	2.3	37.5	45.9	13.1	1.2

마지막으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사이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해 보자. 〈표 11〉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자의 경우 중앙관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는 비율(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를 합쳐 각각 49.5%, 52.1%, 50.6%)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거의 신뢰 안함” 비율이 각각 23.2%, 29.0%, 30.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

자의 경우 중앙관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6%, 51.4%, 45.9%로 신뢰한다는 비율(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를 합쳐 각각 40.9%, 33.2%, 3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표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1.4%와 45.9%에 이르는 반면 자민당 지지자의 경우 이 비율이 29.0%, 30.7%에 지나지 않아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인에 대한 더 큰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고령자 생활보장, 고령자 의료·개호, 자녀 교육, 보육·육아 등의 문제에 대한, 특히 앞의 두 문제에 대한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민주당 지지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민주당 지지자는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환경문제, 범죄단속, 교육, 사회보장, 고용대책 등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해외원조, 토목사업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 지출 감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민주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중앙관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JGSS 2006년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의 두 주요 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성별, 연령,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연세대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등에 있어, 특히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의 특성을 T-테스트를 통해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표 3〉참고), 민주당 지지자는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어리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념적 성향에 있어 약간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T-테스트 분석 결과는 그러나 두 집단이 학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자민당 지지율은 남성일수록,<sup>15)</sup> 고령일수록,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에 속할수록, 연 세대 소득수준이 상층에 속할수록, 이념적 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남성일수록, 고령일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층, 중층, 중하층에 속할수록, 연 세대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매우 높지 않은 층에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약간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인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와 〈표 5〉 참고).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과 지지 정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6〉)는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 연 세대 소득수준이, 특히 성별, 거주지 도시규모, 이념적 성향이 지지 정당 선택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령과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등의 변수는 지지 정당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55년 체제” 붕괴 이후 10여 년에 걸친 정당 간 이합집산과 창당, 해당, 분당, 합당의 재편 과정을 거쳐 현재 자민당과 민주당을 두 축으로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군소정당이 병립하는 형태로 재편된 일본의 정당 체제가 어떠한 지지 기반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드러내준다. 특히 위 세 가지 분석 결과의 종합은 자민당이 중소도시와 지방 정촌에 거주하는 보수적 유권자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약간 혁신적 또는 혁신적 유권자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자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분석한 〈표 7〉, 〈표 8〉, 〈표 9〉, 〈표 10〉은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고령자 생활보장, 고령자 의료·개호, 자녀 교육, 보육·육아 등의 문제에 대한, 특히 앞의 두 문제에 대한 국가 또는 자치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해소를

15) 자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남성에서의 자민당 지지율이 여성에서의 자민당 지지율보다 높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참고).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과 환경문제, 범죄단속, 교육, 사회보장, 고용대책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 필요성, 반대로 해외원조, 토목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의 감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1〉 참고)는 민주당 지지자가 자민당 지지자에 비해 중앙관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이즈미 총리 이후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개혁”과 사회보장 축소,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 이러한 지지층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일본 정부 정책은 앞으로 고령자 생활보장, 고령자 의료·개호, 자녀 교육, 보육·육아 등 사회복지 분야와 빈부격차 해소 등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경문제, 범죄단속, 교육, 고용대책 등에 있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이 이처럼 현재 일본 정당 체제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GSS 2006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JGSS 조사는 200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로 조사 이후 최근 3년 사이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JGSS 2008년 조사 자료가 공개되면 2006년 자료와 비교 연구를 통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전환했는지, 민주당과 자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특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충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둘째,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JGSS 2006년 조사는 응답자의 투표행동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당 지지가 실제 선거에서 어떠한 투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선거가 없는 비선거시(非選挙時) 일본의 정당 지지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 실증적 후속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충해나갈 계획임을 밝혀둔다.

투고일 2009년 8월 27일  
심사일 2009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21일

## 참고문헌

- 고선규. 2006a.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선거정치구조 변화." 『일본학보』 제66집, 317-31.
- \_\_\_\_\_. 2006b. "2005년 일본 총선거와 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5-40.
- 권순미. 2003.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311-32.
- 박철희. 2006. "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79-99.
- 손열. 2007. "55년 체제." 현대일본학회 편, 『일본정치론』, 104-27. 서울: 논형.
- 이기완. 2002.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서울: 케이시.
- \_\_\_\_\_. 2003. "1990년대 일본정치의 변동과 사회당: 사회당 노선전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3호, 275-93.
- \_\_\_\_\_. 2006. "일본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변화: '55년 체제'에서 '2와 2분의 1 정당제'로의 전환." 『대한정치학회보』 14집 2호, 1-19.
- \_\_\_\_\_. 2008. "일본 정당구도의 재편과 전망." 『평화연구』 제16권 제1호, 60-83.
- 이이범. 2003. "일본의 55년 정당체제의 변용과 붕괴요인의 분석." 『일본연구』 제21호, 189-214.
- \_\_\_\_\_. 2004. "2003년 일본 총선거결과 분석과 일본정당시스템의 변화." 『일본연구논총』 제19호, 1-27.
- \_\_\_\_\_. 2006. "2005년 일본 총선의 결과 분석과 투표 성향의 변화." 『일본연구』 제29호, 59-84.
- 이시카와 마사미(石川眞澄). 2006. 『일본 전후 정치사』. 박정진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이현출. 2002. "일본 55년 체제 이후의 투표행태: 이념균열에서 지역균열로의 전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57-80.
- \_\_\_\_\_. 2003. "2003년 일본 총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137-58.
- 정진민. 1997.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정당체계의 재편성." 『사회과학논총』 제13집

제2권, 465-86.

조재욱. 2006. "2005년 중의원선거와 일본의 정당구도: 55년체제로의 회귀?" 『동북아 연구』 제11호, 157-73.

Curtis, Gerald L. 1988.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_\_\_\_\_. 1999.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alton, Russell J. 2000. "The Decline of Party Identification," in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菅沢文明. 1986. "國政選舉の分析: 社會的屬性の分析." 堀江湛, 梅村光弘 編. 『投票行動と政治意識』.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大嶽秀夫. 1999. 『日本政治の對立軸: 93年以降の政界再編の中で』. 東京: 中公新書.

岩淵美克. 1986. "地方選舉の分析: 社會的屬性の分析." 堀江湛, 梅村光弘 編. 『投票行動と政治意識』.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三宅一郎. 1985. 『政党支持の分析』. 東京: 創文社.

\_\_\_\_\_. 1995. 『日本の政治と選舉』.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_\_\_\_\_. 1998. 『政党支持の構造』. 東京: 木鐸社.

\_\_\_\_\_. 2001. "經濟評價の變動と自民黨支持: 個人データ分析." 三宅一郎 외 2인. 『55年體制下の政治と經濟』. 東京: 木鐸社.

西澤由隆. 1992. "經濟政策に對する業績評價としての自民黨支持率." 日本政治學會 研究報告論文.

\_\_\_\_\_. 2001. "自民黨支持率と經濟業績評價." 三宅一郎 외 2인. 『55年體制下の政治と經濟』. 東京: 木鐸社.

小林良彰. 1987. "投票行動と政治意識に関する計量分析." 『選舉研究』, No. 2, 26-63.

\_\_\_\_\_. 1991. 『政治過程の計量分析』. 東京: 芦書房.

\_\_\_\_\_. 1997. 『現代日本の政治過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時事通信社. 2009/09/17. "時事世論調査の檢索結果." [www.jiji.com](http://www.jiji.com)에서 검색가능.

十川宏二. 1993. "現代日本における經濟狀況と政党支持." 『レヴアイアサン』, 12號, 173-86.

日本政治學會編. 1996. 『55年體制の崩壞』. 東京: 岩波書店.

猪口孝. 1983. 『現代日本政治經濟の構圖』.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川人貞史, 吉野孝, 平野浩, 加藤淳子. 2001. 『現代の政党と選舉』. 東京: 有斐閣.

- 蒲島郁夫. 2004. 『戦後政治の軌跡: 自民党システムの形成と變容』. 東京: 岩波書店.
- 荒木俊夫. 1994. 『投票行動の政治學』.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ABSTRACT

## A Comparison of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Supporters and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Supporters: From Analysis of the 2006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

Bumsoo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socioeconomic, ideologic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supporters with those of Democratic Party of Japan supporters.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2006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Regional Studies,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and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from October to December 2006 with 4,254 Japanese aged between 20 and 89, this paper reveals that the proportions of females, older-generations, small-town residents, people from higher strata, people with higher annual income, people who are ideologically conservative, and people with low education are higher for LDP supporters than for DPJ supporters. This paper also shows that, when compared with LDP supporters, DPJ supporters more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areas of social welfare, caring for older people, education, child-care, poverty, environmental protection, employment, and so on. In doing so, this paper reveals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bases of the current Japanese party system.

**Keywords:** Japan, party politics, party support, the 1955 system,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